

기술표준원, 국산 신기술 25종 인증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LPG 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이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25개 신기술로 선정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기술 25개를 선정해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을 부여할 계획으로 4월28일 양재동 산기협회관 대강당에서 수여식이 개최된다.

현대자동차는 LPG 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을 개발했다.

세계 최초로 LPG 연료를 엔진에 직접 분사하는 LPI 하이브리드 기술로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연비를 50% 이상 개선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휘발유 차량의 4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세계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LG전자는 바이오효소(Subtilisin A) 응용 진드기 알레르겐(Allergen) 불활성화 필터를 개발했다.

알레르기 치료 공조용 필터로는 국내 최초로 영국알러지협회(BAF)로부터 인증 받았으며 에어컨 또는 공기청정기에 적용해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코팅용 투명 은(Silver) 잉크를 제조해 상온·상압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롤투롤(Roll-to-Roll) 프린팅 공정기술 등에도 신기술 인증을 부여했다.

<화학저널 2009/04/27>